

1 개요

세화본향당 금상님본풀이는 구좌읍 세화본향당에서 모시는 금상님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천하명장인 금상님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주술로 이겨내고 배필을 찾아 제주도로 가서 백जू도를 만나 혼인하고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금상님은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천하명장이다. 구척 장신에 전형적인 장수의 면모를 갖추었다. 금상님은 나라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자 궁궐에 재해를 일으켜 자신을 알리려 하였다. 나라에서는 역적이라 하고 금상님을 잡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노라고 하였다.

수많은 장수들이 달려들자 금상님은 반항하지 않고 잡혔다. 아무리 금상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죽지 않았다. 무쇠 집에 가두고 석달 열흘 동안 불을 때었으나 금상님은 얼음 빙자(氷字)와 눈 설자(雪字)를 써붙이고 오히려 춥다고 야단을 치면서 스스로 무쇠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금상님은 스스로 천기(天機)를 보아 배필이 제주도에 있음을 알고 세화리로 가서 백जू도를 만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 혼인하고 살았다.

3 특징

이달춘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금상님은 전형적인 장수의 면모를 지닌 신이다.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제주도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성산을 삼달리 본향당의 어모장군이 있다.

장수신이면서 육식을 하기에 본향신인 백जू도와 혼인하기 어려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비로소 혼인할 수 있었다. 육식을 하기에 본향신이 될 수도 없었다. 금상님이 자꾸 말라가자 정갈하게 씻어내라는 조건을 달고 돼지고기 제물을 받게

하였다고 한다.

현지에서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바치는 돛제의 대상이 된다. 돛제를 지낼 때는 벅쫓도와 금상님의 제물을 한 상에 차리되 두 신의 제물 사이에 백지를 두어 가린다.

4 핵심어

서울, 남산, 천하명장, 구척장신, 역적, 무쇠 집, 천기(天機), 세화리, 벅쫓도, 돼지고기, 돛제, 삼달리, 어모장군

5 원전 서지사항

세화본향당 금상님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